

닭고기일일시장뉴스 (2026.10.18)

(주)로드프리미엄 | 대상: 브라질 / 태국 / 덴마크 / 한국 수입 동향

오늘의 핵심

- 1. 브라질의 10월 첫 7영업일 닭고기 수출은 193,210톤, 하루 평균 27,600톤으로 전년보다 28.1% 늘었고, 톤당 단가도 US\$1,920(+14.6%)으로 올랐습니다.
- 2. 브라질 국내 냉동닭 가격(Cepea, SP)은 10/14 R\$8.39/kg로 보합이며 10월 누적 1.08% 올랐습니다. 1~9월 브라질의 대중국 닭고기 수출은 금액 113%, 물량 86% 늘었습니다.
- 3. EU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9/3~)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EU는 “수주 안” 재개를 언급했지만, 브라질 측은 행정 절차가 끝나야 수출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 4. 중국산 닭고기가 브라질산보다 10~20%(톤당 약 1,000달러) 싸게 팔리며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USDA는 중국의 2026년 닭고기 수출을 154만 톤(+42%)으로 전망합니다.
- 5. 한국 육계 산지가는 9/30 3,308원/kg으로 6개월 새 37.7% 내렸고, 1~8월 브라질산 수입은 42.1% 늘었습니다.

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

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 아래는 Tridge 한국 수입단가, 수출 단가(금액/물량), 산지 가격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

국가	지표	최근 가격	변동	출처
브라질	Cepea 냉동닭 SP (10/14)	R\$8.39/kg	전일 0%, 월초 대비 +1.08%	Cepea
브라질	Cepea 냉장닭 SP (10/14)	R\$8.41/kg	-	Tudo Rondônia(Cepea)
브라질	9월 수출 단가 (US\$9.842억 / 50.03만 톤)	약 US\$1,967/톤	전년 동월 대비 +10.6%	Itatiaia
브라질	10월 1~7영업일 수출 단가	US\$1,920/톤	전년 10월 대비 +14.6%	Notícias Agrícolas(Secex)
브라질	10월 1~7영업일 하루 평균 수출량	27,600톤	전년 대비 +28.1%	Notícias Agrícolas(Secex)
브라질	3분기 수출 물량 (7~9월)	151만 톤	전분기 +2.2%, 분기 최고	Capital News
브라질	2027년 수출 전망 (FAS)	550만 톤	세계 수출 +3%	USDA FAS
브라질→한국	Tridge 한국 수입 평균단가 (8월)	US\$2.752/kg	-	Tridge 한국
태국	Tridge 거래단가 (8월)	US\$2.982/kg	-	Tridge
태국	2027년 생산/수출 전망 (FAS)	356.5만 / 124만 톤	-	USDA FAS
태국	8월 가공 닭고기 수출액	US\$2.928억	전년 +10.5%	Asian Agribiz
덴마크	Tridge 거래단가 (8월)	US\$2.023/kg	-	Tridge
EU(벨기에)	자유시장 육계 (지난주)	€1.14~1.16/kg	-€0.03	top agrar
EU(네덜란드)	Barneveld 육계 생체 (이번 주)	€1.08~1.10/kg	-€0.01	top agrar
중국	닭고기(백조계) 도매 평균 (10/16)	17.26 CNY/kg	전일 +0.9%	NetEase(농업농촌부)

국가	지표	최근 가격	변동	출처
중국	2026년 닭고기 수출 전망 (USDA)	154만 톤	+42%, 브라질산보다 10~20% 저가	Valor International
한국	육계 9~10호 산지가 (9/30)	3,308 KRW/kg	3/30 대비 -37.7%	Korea JoongAng Daily

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

닭고기 국가별 가격 변화



자료: Cepea, Notícias Agrícolas(Secex), Tridge, Itatiaia, Korea JoongAng Daily (수출 단가는 금액 ÷ 물량 계산값)

국가별 주요 뉴스

브라질

- 10/16 Safras에 따르면 브라질 닭고기 도매가는 보합이지만 오를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ABPA는 EU의 수입 재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afras](#)
- 10월 첫 7영업일 닭고기 수출은 하루 평균 27,600톤(+28.1%), 단가 US\$1,920/톤(+14.6%)으로 물량과 가격이 모두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고기 수출은 39.9% 줄었습니다. [Notícias Agrícolas\(Secex\)](#)
- 셀바크 HPAI 건은 10/7 새로운 의심 사례 없이 감시가 끝났습니다. ([Jornal do Comércio](#))
- 이번 건은 뒷마당 가금 사례여서 상업 가금 위생 지위나 수출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Agrolink](#))
- 9월 EU향 수출은 43,500톤(전년 3,900톤)이었습니다. 9/3 EU의 신규 증명서 발급 중단(항생제 규정) 전에 인증된 물량이며, 중국향은 40,900톤(전년 51톤), UAE향은 45,900톤(+23.3%)입니다. ([Folha](#))
- EU는 9/30 브라질산 닭고기·꿩 수입을 “수주 안” 재개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최신 보도 기준으로 수입 중단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은 행정 절차가 끝나면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Ground News](#)
- 9월 수출은 50.03만 톤(+3.7%), 1~9월 누계는 442.1만 톤(+14%)입니다. ([Itatiaia](#))
- 3분기 수출 151만 톤은 분기 기준 사상 최고입니다. 9월 물량은 전월보다 1.6% 늘어 올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10/10). ([Capital News](#))
- 1~9월 브라질의 대중국 닭고기·부산물 수출은 금액 기준 113%, 물량 기준 86% 늘어, 같은 기간 소고기(-8.5%)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Valor International](#)

태국

- 상반기 태국 가금 수출은 8% 줄었습니다. 브라질·중국과의 경쟁과 일부 가공업체의 중국 수출 허가 만료로 생·염장 닭 고기가 급감했고, 가공 닭고기는 EU·일본 수요로 4% 늘었습니다. [aviNews](#)
- 태국 상무부는 닭 사육 농가가 시장 상황을 보고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온라인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The Nation](#))
- 9월 말 홍수로 농업 공급망 손실은 691억 바트로 추산됩니다. 소비자의 닭고기 추가 지출은 17억 바트로, 10월까지 차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The Nation](#))
- 태국 정부는 홍수 피해로 업체들에 12월까지 계란 수출을 30~50%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Ground News](#))

5. 8월 가공 닭고기 수출은 2.928억 달러(+10.5%)로 9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Asian Agribiz)

덴마크·EU

1. 네덜란드와 동유럽은 육계 공급이 넉넉하고, 도체 중량이 150~200g 늘어 고기 생산량이 6~7% 많아졌습니다. 벨기에의 조류인플루엔자 2건까지 겹쳐 시세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일부 업체는 생산분을 냉동하고 있습니다. (top agrar)
2. EU 닭고기 생산은 2027년 1,300만 톤에 이를 전망이고, 세계 가금 생산 증가율 전망도 3.5%로 높아져 공급 과잉이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Zootechnica)
3. 영국에서 2026/27년 시즌 첫 HPAI 농장 발생이 확인됐고, 덴마크는 대규모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oultryMed)
4. 덴마크는 비육 칠면조 농장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10월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top agrar)
5. 스페인 발렌시아 우티엘 지역에서 뉴캐슬병이 네 번째로 발생해 현지 가금 산업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Zootechnica International

한국 수입 동향

1. 일본은 닭고기 재고가 쌓이고 5월 이후 도매가가 약세인데도 브라질산 수입이 계속 늘고 있어, 아시아 시장 전반에 공급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aviNews
2. 국산 육계 산지가가 크게 내렸는데도 치킨 프랜차이즈 가격은 그대로여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Korea JoongAng Daily)
3. 1~8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은 139,267톤(+42.1%)입니다. (Boca)
4. 중국 닭고기 도매가는 10/16 17.26위안/kg(+0.9%)으로 반등했습니다. 중국산 닭가슴살·다리는 브라질산보다 10~20% 싸고, 태국 수출업체는 바이어들이 중국산 가격을 협상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닭고기 수출은 2026년 154만 톤(+42%), 2027년 192만 톤으로 늘 전망입니다. (NetEase(농업농촌부), Valor International)
5. USDA는 한국의 2026년 닭고기 수입을 27만 톤(+3.8%)으로 전망했습니다. (USDA GAIN)
6.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현지 구매가가 178원이고, 항공운임 959원·관세 307원 등을 더해 최종 수입단가가 1,464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112만 개 총비용은 약 16억 원이며,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비한 시범 수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7. 미국에서는 비싼 소고기 대신 닭고기로 옮겨 가는 소비가 나타나고 있어, 국제 닭고기 수요를 받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arketScreener
8. 일본에서는 엔저로 수입 소·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며 닭고기 소비(260만 톤)가 2년 연속 돼지고기를 앞질렀습니다. 최근 5년간 닭고기 소비는 6% 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

- 국내 육계 가격이 크게 내려 수입 닭고기의 가격 우위가 줄었습니다. 4분기 수입 물량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 EU·아시아 공급 과잉(중국 생산 +9.4%, 일본 재고 증가)으로 국제 닭고기 시세는 약세 쪽입니다. 다만 브라질 수출 단가는 10월 들어 오히려 올라, 브라질산은 가격보다 물량 확보 위주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브라질산 오퍼가 높게 나오면 덴마크·EU산이나 태국산과 견줘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 브라질산: 9/3부터 EU 신규 수출이 막혔으므로, 10월 이후 EU향 물량(9월 43,500톤)이 아시아·중동으로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향 다리살·가슴살 오퍼 인하를 요구할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태국산: 홍수 피해로 공급 차질 가능성이 있어, 가공품(가라아게 등) 선적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국산 저가 닭고기가 국제 시세의 기준이 되고 있어, 브라질·태국산 오퍼 협상 때 중국산 가격을 참고하면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한 줄 요약

세계 닭고기 공급 과잉과 국내 육계 가격 급락으로 수입 닭고기 매입 여건은 바이어에게 유리하지만, 국내 판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물량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